바이든 취임식날 20일 '테러 주의보'

워싱턴 비상사태 선포 속 초긴장
"4천명 무장세력 의회 포위 음모"
FBI도 미 전역 무장시위 경고
대규모 병력 투입 의회 접근 제한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테러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이 전례 없는 최악의 의회 난동사태까지 촉발한 가운데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DC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서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민주당 코너 램 하원 의원은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무장 극단주의자들이 취임식을 앞두고 연방의사당 주변을 포위하는 음모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램 의원은 전날 의원과 의회를 향한 새로운 위협에 관해 당국자들의 브리핑에 참석했다.

그는 4000명의 무장세력이 의회를 포위해 민주당 인사들이 취임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총을 쏠 때와 쏘지 않을 때와 같은 교전규칙까지 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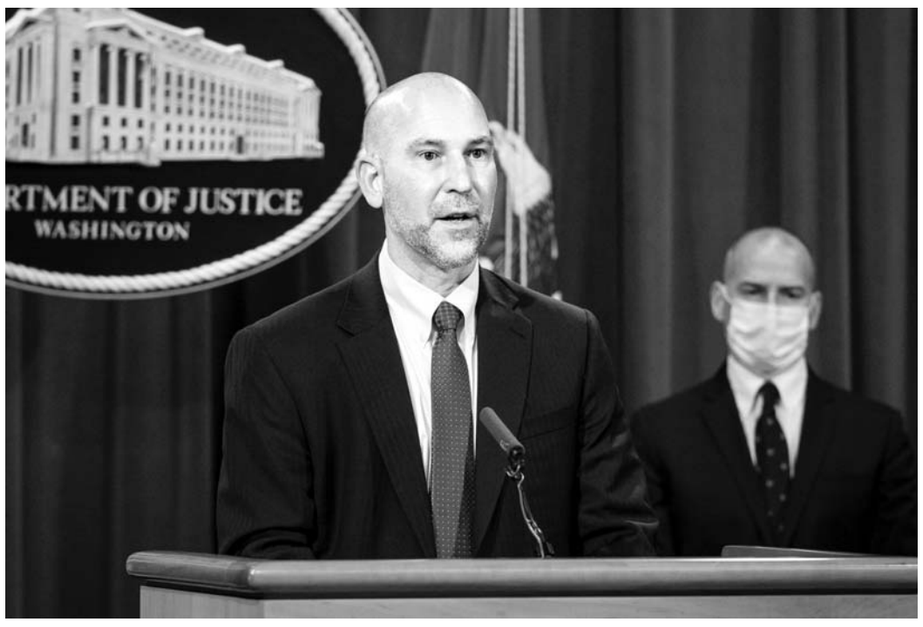
그는 "이들은 계획을 세운 조직화한 집단"이라며 "그들은 자신이 애국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에 전념하고 있다. 그들은 1776년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776년은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선언한 해다. 전날 연방수사국(FBI)은 워싱턴DC와 50개 주의 의사당에서 무장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시위 주체 일부가 극단주의 단체 소속이라며 무장 시위는 주말인 16일부터 최소 20일까지 모든 50개 주의 주도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DC에서 계획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FBI는 취임식에 앞서 바이든 당선인을 해하려는 다양한 위협에 관한 보고를 추적중이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한 위협 보고도 있다고 전했다. 전날 브리핑에 참석한 다른 민주당 의원 2명은 CNN에 몇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으며, 당국자들은 이 위협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그들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며 "군중심리가 강해지고 대담해지더라도 실제로 단호한 힘에 직면하면 이 공상세계 같은 신념은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취임식장 주변에 배치되는 주 방위군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현재 워싱턴DC는 취임식을 앞두고 초비상 상태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폭력시위가 우려된다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애초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 계획한 병력 배치를 13일로 앞당겼고, 백악관은 물론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 주변도 경비를 강화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다. 워싱턴DC에는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 후 6200명의 주 방위군이 파견돼 있지만, 1만5000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주방위군이 워싱턴 거리에서 무장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살상 무기를 소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군 지휘관들은 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물론 워싱턴DC,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등 미국 수도권(NCR)의 지방정부도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20일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고 집에서 원격으로 봐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전염병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내셔널 몰에 19만 1500개의 깃발을 세워 취임 선서를 지켜보기 위해 모이는 관중을 대신하기로 했다. 취임 퍼레이드와 축하 무도회와 같은 전통적인 행사도 가상으로 진행한다. /연합뉴스



미 의사당 난동 수사 브리핑 스티븐 단투오노 미국 연방수사국(FBI) 워싱턴DC 지부장(왼쪽)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법무부 청사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에 가담한 용의자 추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드 브라질 공장 직원들 공장 폐쇄로 실직 위기 브라질 남동부 상파울루주 타우바테시에 있는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12일(현지시간) 실직 위기에 놓인 직원들이 노조가 주최한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는 판매량 감소로 인해 타우바테 공장을 비롯한 카마사리와 오리존치에 있는 브라질 내 공장 3곳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연합뉴스

91%서 50%까지…중국산 백신 효과 '들쑥날쑥'

임상시험 국가별 예방효과 차이

중국 제약사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코로나백'의 예방효과가 들쑥날쑥하게 나타나면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백 임상시험을 담당한 상파울루 주정부 산하 부탄탕연구소는 12일(현지시간) 코로나백 예방효과가 50.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만2500명의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2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들 중에 백신과 위약을 맞은 이는 각각 85명과 167명이었다. 코로나백 예방효과는 세계보건기구(WHO) 제시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최소기준인 50%를 겨우 넘겼다.

또 화이자-바이오엔테크(95%)나 모더나(94.1%),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70.8%)의 예방효과를 크게 밑돈다.

코로나백신은 임상시험을 실시한 국가별로도 예방효과 차이가 크다. 터키는 지난달 1300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코로나백 예방효과가 91%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지만 인도네시아는 11일 코로나백 긴급사용을 승인하며 1620명 대상 시험에서 예방효과가 65.3%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로나백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달리 냉동이 아닌 냉장상태에서 비교적 싸고 쉽게 운송·보관이 가능해 중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선호한다. /연합뉴스

미 전문가들 "바이든, 대북 신속대응 나서 북 위기 조성 막아야"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 정책 보고서
"한미 요구·양보 담은 공개제안 필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하게 대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11일(현지시간) 내놓은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한미가 맞닥뜨릴 단기 과제로 대북 조율을, 중기적 과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복귀 및 북한과 중국 인권 강조 재개를 꼽았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긴급 현안들이 있더라도 북한과 관련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 북한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무대를 설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가 요구 및 양보 사항을 담은 공동 공개 제안을 마련해 북한에 제시하는 것이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외교적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도 했다. 보고서는 "작은 조치들이 북한과 외교를 재개하는 최고의 방법일 수 있다"면서 궁극적 목적이 비핵화라는 사실을 고수하면서도 비핵화가 아닌 다른 주제들로 협상 재개를 도모해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2월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그 토대에서 이어갈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미가 향후 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해 전략적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협력 복원을 원하면서도 이를 통한 미국의 이익 증진을 추구하고 있어 한국에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미국 등 생각이 같은 나라들의 대중국 대응 협력에 한국이 역할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전문가 40여명의 논의를 통해 도출됐다. /연합뉴스

베트남 맞아?…이상 저온에 눈 펄펄

영하 날씨에 가축 600여마리 폐사

8 베트남 북부와 중북부 지역에서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가축 600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13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와 베트남통신(VNA) 등에 따르면 최근 중부 투아 티엔 후에성에서는 떨어진 기온에 찬비까지 계속 내려 물소와 젖소, 염소 등 가축 460여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북부 라오까이, 까오방성 등에서도 전날 현재 물소 148마리, 젖소 79마리, 염소 1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 지역 관계자들은 낮은 기온과 찬비로 인해 가축이 이렇게 많이 폐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북와 중북부 지역 산간 지역 온도는 평소 이 시기 9~11℃이지만 최근에는 4~7℃에 불과해 폐사하는 가축 수가 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지역민들은 계속해서 내리는 찬비 때문에 가축들이 폐사하는 것은 물론, 겨울-봄철 농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투아 티엔 후에성 농업 및 농촌개발국의 호 방 부국장은 "성 전체로 지금쯤이면 2만8000ha(헥타르)에 씨를 뿌려야 했지만, 현재까지 2000ha 파종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국 관계자들은 농촌 지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헛간을 보수하고 불을 피워 소나 염소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들을 전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기상당국은 이날까지 북부 및 중북부 지역에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산악 지역인 북부 라오까이성 산골 마을인 이띠에는 최근 눈이 내렸다. VNA는 적설량이 15㎝ 가량이라고 전했다. 아열대 기후인 베트남에서 눈이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 설경을 만끽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다만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추락 및 추돌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적도 부근 동태평양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인 라니냐의 영향으로 최근 예년보다 더 추운 겨울 날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협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협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 · 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협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